

元曉大師, 得道석굴發見

한국불교의 요람이자 聖地의 하나인 八公山의 주봉, 昆盧峰의 靑雲臺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僧侶이며 사상이인 元曉大師가 得道한곳으로 추정되는 石窟이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11월4일에 발간된 大邱의 每日新聞에는 깎아세운 듯한 해발 1,100m인 靑雲臺와 득도한곳으로 추정되는 石窟(약 1050m지점)의 사진과 함께 이 사실을 크게 다루고 있다. 元曉大師는 서기 617년(신라眞平王 39년)에 尙州押梁郡(現·慶山)의 南佛地村 또는 發智村 북쪽밭실(栗谷)마을에서 탄생, 29세때 출가 慶州皇龍寺. 八公山의 佛窟寺(慶山郡瓦村面 江鶴洞)三聖庵(6.25때 소실) 悟道庵(同上)등에서 10余年간 수도한것으로 알려졌다. 海東화엄종의 創始者이기도 한 元曉大師는 八公山 第二石窟으로널리알려진 軍威郡岳溪面 南山里的 三尊石窟(국보제109호)을 짓기도해 八公山곳곳에 그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靑雲臺의 이 石窟역시 그가 八公山悟道庵뒤편의 石窟에서 得道했다는 전설과 口傳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것. 文暉鉉씨(경북대 교수) 朴在健씨(螢雪출판사 상무) 李在鉉씨(古美堂대표)등 영남문화동우회 회원들은 지난 86년부터 답사해 온것이라 한다. 文교수는 「불가에서는 빼만 앙상히 남을 정도로 참선을 계속하는 “枯骨觀”이란 좌선수도의 경지가 있다……」 이 石窟의 발견에 의해 「儒·佛·仙에 통달한 한국최고의 승려이면서도 정통 역사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元曉大師의 확실한 득도처가 발견돼 한국淨土宗(해동 화엄종)의 일급 聖地는 전부 이부근(삼중석굴·오도암등)에 있음이 확인된셈」이라며 「원존석굴중 最古(7세기)의 石窟이며 가장높은곳(해발1050m)에 위치한 石窟」이라 했다. 한편 지난 10.29. 2차현지답사때 이석굴 입구우측에서 風化된 글자가 발견됐는데 文교수는 「3字쯤 되는 것 같다… 세밀한 판독을 해야겠지만 한자는 誓字인것 같다」고 말하고 誓字가 분명하다면 틀림없는 원효대사의 수도처로 입증된다는것. 元曉大師의 어릴때 이름이 서당(최돌)이었기 때문이라 한다.

北漢山을 살려야 한다.

歲暮에 접어든 11月8日 中央日報1面 「逆光線」欄엔 “국립공원, 行樂 쓰레기로 重病. 自然 病들면 人間도 앓는다는 攝理알아야”고 警世의 鍾을 울려주었다. 速斷인지모르나 이는 12月부터 늘어터로 變해가는 北漢山 국립공원의 利用行態를

바로잡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勇斷을 내린 入場料徵收豫告와 無關하진 않은듯.

들은바로는 高位層에서도 깊은 關心을 기울여 自然保護團體에 까지 意見을 종합했다는 後聞인데 자연보호단체서는 국립공원의 입장료징수는 공원의 자연보호상 妥當하다는 意見 한편 중소도시민의 意見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었다. 「말로만 人口分散하지 말고 서울이나 地方이나 꼭 같이 살기 좋게 해야않겠나…… 서울은 없는것이 없고 놀곳도 많고 볼것도 많고 돈도 많은데 국립공원까지도 無料이니 모여들수 밖에……」

逆光線의 短評그대로 北漢山의 숲이 불타 죽고 밟혀죽고 汚染되면 사람은 모두 病들것은 뻔한일.

요즘 登山客이 부쩍 늘어난 서울 주변의 冠岳山등 景致좋은 산은 모두 쓰레기로 몸살이다.

이날字로 都下각신문에는 全國을 휩쓴 國會청문회 視聽을 둘러싼 論評과 前날 시정률 54%를 기록한 警異的인 國民政治의 熱氣로 흥분상태.

自然을 아끼고 사랑하는 國民의 熱氣는 果然 언제 일어날 것인지 政治社會指導層의 關心이 크게 期待된다는 衆論.[Y]

不親切한 陽瀑山莊관리인

지난 10월18일(火)친구 몇사람과 함께 오랜만에 雪嶽山을 찾았다. 해가 저물어 가기에 陽瀑山莊으로 갔더니 收容能力이 23인 이라고 하는 이 산장에 순번이 빨라 선지 一泊할수가 있었다. 숙박비 1천원. 침구대여료 5백원으로 정말 값싼 숙박을 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洞窟처럼된 山莊이라 火氣위험도 없었지만 電池는 물론 촛불도 없어 밤중에 화장실거동이 정말 不便하여 管理人에게 「촛불이라도 있었으면」했더니 各自준비해야 한다고 영똥한 소리를 하면서 싫으면 나가라는 것이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다음날 아침 떠나는 인사를 겸해 「말이라도 좀 親切히 해야않겠느냐」고 하니, 「실컷잠 잘자고 무슨소리나……」고 되려 꾸중調였다. 물론 숙박지원자는 많고 자리가 비좁기에 “不親切하게 해도 올사람은 온다”는 배짱이 생겨 그런지 평소행실이 사나워선지 모르지만 담방객에 모처럼 좋은일 해주면서도 不快感을 안고 돌아가게하는 이 山莊관리자의 반말쓰는 버릇은 누가 고쳐주실까 …

[편집자주 : 이 산장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고 있는 산장인데 관리소에다 단속을 의뢰하였음]

[서울 江西區 화곡동 908-20 박경원]

◆ 各界의 弘報·動靜資料를…

▲ 全國 各大學의 환경·자연관계 研究發表자료 ▲ 政府 各部處서는 主要弘報事項 ▲ 全國 各市道郡에서 行해진 自然·환경관계 行事 ▲ 團體會員社 및 一般會員의 主要行事 ▲ 포상·學位 획득 (특히 各大學과 단체 회원사서는 各급적 大學新聞·社報를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국립공원협회 사무국>